

수출규제 관련 중국동향(8.14)

□ [주요 언론 동향]

- 인민일보(人民日报)는 한·일 양국의 무역마찰이 역사문제, 영토분쟁 등과 관련되어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보도¹⁾
- o 한·일 관계 긴장의 시작은 과거사 문제가 직접적인 계기이자 걸림돌이며, 한국 정부는 이번 마찰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보도
- o 현재 미·일 관계는 가장 좋은 시기인 반면 동북아 정세는 악화되고 있어 일본은 한국이 전략적 가치가 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단기간 내 양국 간 구조적 갈등은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인용 보도(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 박병광 실장)
- o 또한 한국 정부가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감수하기보다 일본과 화해하려는 태도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인용 보도
- 환구망(环球网)은 일본 교토통신을 인용하여 한·일 양국 정부가 금주 내(16일 혹은 17일) 미국 콰에서 차관급 협상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보도²⁾
- o 한·일 양국은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 요구 등 사안을 둘러싸고 협상을 개최할 것이며, 동 협상은 대립관계를 완화시키는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다고 인용 보도
- 중국경제망(中国经济网)은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하면 win-win이고 싸우면 모두 피해’라는 공감대를 이미 형성하고 있으며, 양국 관계 개선의 핵심은 일본이 수출규제를 취소하고 한국은 국민의 반일 정서를 약화시켜야 한다고 보도³⁾

1) 「韩日贸易摩擦持续发酵」, 『人民日报』(2019. 8. 14)

2) 「争端加剧, 日媒:日韩拟最快本周内举行副外长级磋商, 地点在关岛」, 『环球网』(2019. 8. 14)

3) 「日韩互踢“白名单”之后, 还有的聊吗?」, 『中国经济网』(2019. 8. 14)

- 중국 전문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한국 경제는 타격을 받았고 한국이 반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한국 정부는 분쟁이 더욱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평가(길림대학교 국제관계학원 王生교수)
- 한국의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는 일본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일본 정부도 사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 수출규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함. 또한 양국 모두 극단적인 관계 악화는 피할 것으로 전망
- 한·일 양국의 갈등은 뿌리가 깊으나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경제·무역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도
 - 중국청년보(中国青年报)는 한·일 분쟁이 격화될수록 미국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것이라는 일본학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⁴⁾
- 아베 내각이 對韓 수출규제에 대한 결과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무너뜨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
- 또한 한·일 분쟁은 양국의 핵심이익을 위한 경쟁이기 때문에 설령 미국이 중재하여도 효과가 없을 것이며, 한·미, 미·일 군사동맹이 흔들리지 않는 한 미국은 오히려 이번 분쟁이 격화될수록 더 큰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언급
- 한·일 분쟁이 장기화된다면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상당히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중국 반도체산업의 발전에도 영향을 줄 것이므로 중국 정부 역시 사전에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 * 미국 발 무역전쟁, 영국의 브렉시트 등 일련의 사건들로 일본은 미국과 유럽 주요 시장에서 불안과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일본 경제는 중국 없이는 상상할 수 없음.
 - * 현재 중일관계는 개선되고 있으며, 한국에게 취했던 조치들을 중국에 취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언급

4) 「日本学者：日韩相斗，美国渔利」，『中国青年报』(2019. 8. 14); 도기충화 연구소(道纪忠华智库) 일본학자 后藤锦隆